

## 제23차 UIA(세계건축사연맹) 총회 참관기

이번 23차 UIA 총회는 필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총회였다. 우선 지역 단체인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회장 자격으로 초대 되었고, 출발 전 FIKA 회의에서 논의했던 임원 및 이사 선출 대책논의에서 필자의 역할에 무게가 실려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총회의 일정 중에는 지역 건축 단체장 회의가 있어 회원국을 대표하여 현황을 보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며, 현 UIA회장 임기 동안 주제로 선정한 '문화의 다양성' 과 '지속 가능한 건축' 그리고 '기술의 이동성' 에 관한 논의를 참석자 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UIA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건축설계와 실무에 관해 서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비정부기구이다. 특히 WTO로부터 공식적인 국제기준의 제정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하지만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건축사 관련 단체일 뿐만 아니라, WTO의 중심국가인 미국, 영국, 중국, EU 등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UIA에서 제정한 권장 안은 건축사 상호인정 협상의 국제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고하기로 하였기에 필자는 이번 기고에서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UIA의 연혁과 조직,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건축사연맹(UIA)은 1948년 6월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의 건축사들이 국적, 인종, 종교 또는 건축 이론과는 상관없이 서로 결속하고, 그들의 국가 내의 조직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7개국이 참가하여 창립된 UIA는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123개 국가들의 핵심 전문 단체들을 참가하고 있고 이 단체들을 통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300,000명 이상의 건축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UIA는 모든 대륙에 걸쳐

유례없는 건축 전문가의 조직망을 가진 비정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임무를 수행해내기 위한 UIA의 구조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대표들과 영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모두가 수긍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민주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의사 결정은 아래 4개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The UIA General Assembly (UIA 총회)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된다. 그것은 연맹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단 및 UIA 이사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 The UIA Council (UIA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과 5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씩 열린다

### The UIA Bureau (UIA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직전 회장, 사무총장, 재무관 및 5명의 지역 부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역 부회장은 그들 지역에 있는 전문 활동을 책임진다. 임원회는 이사회의 중간, 일년에 두 번씩 열린다.

### 각 회원국가

회원은 소속 국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전문 건축가 단체이다. 각 회원은 소속국가에서는 독립적이지만, UIA내에서는 정부 또는 다른 회원국과의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닌다.

UIA 회원국은 아래와 같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 5개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 1지역 - 서유럽
- 2지역 - 동유럽과 중동
- 3지역 - 아메리카
- 4지역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 5지역 -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제4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UIA는 각국의 공인된 건축관련 유일한 단체로, 회원들의 국제 커뮤니티에 그

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사안에 따라 서로 보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높은 단계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 UNESCO(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UIA는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의 건축에 관여하는 유일한 자문 단체이며, 유네스코는 총회기간에 작품이 인정되는 훌륭한 학생에게 건축상을 수여한다
- UN-HABITAT: UN 인간거주 정착센터
- UNEP: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 UNIDO: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 WHO: 세계보건기구
- WTO: 세계무역기구
-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외에도 UIA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

- ISOCARP: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 IFLA: 세계조경가연합
-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ISC20,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20th Heritage
- DoCoMoMo,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UIA와 상호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은 지역별 건축사 기구:

- AC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 유럽건축사협의회
- ACCEE, Architects' Council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 중앙, 동부유럽 건축사연합회
- FPAA : 미주건축사연합회
- ARCASIA : 아시아건축사협의회
- AUA : 아프리카 건축사연합회
- \* ARCASIA는 현재 본 협회 본인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17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UIA의 주요활동과 그 주요 역할을 보면 우선 UIA는 여러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과 건축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세 주요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 건축 교육
- 전문적 실무
- 국제 현상

더불어 UIA는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IA의 working 프로그램 틀 안에서, 많은 건축사의 사회적 개입과 주어진 환경의 특정한 양상을 탐구하고 그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출판과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 건축 공동체에 제공한다. 아래와 같은 6개의 일반적인 주제에 따라 21개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 working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 ①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지속 가능한 건축, 건축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ARES)
- ② 사회: 건축사의 역할, 건축과 아동, 모두를 위한 건축
- ③ 도시 계획: 중도시 및 세계 도시화, 도시 조성 및 재난, 과학과 하이테크 시설
- ④ 거주지
- ⑤ 문화의 주체성: 유산, 영적인 장소
- ⑥ 특수 시설: 교육과 문화적인 공간, 관광 사업, 공중 위생, 스포츠와 여가

이와 같은 working 프로그램은 모든 UIA 회원국내의 건축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이는 그들의 업무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UIA는 건축사가 된 전문인에게 양질의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사회에서 지정한 회원들로 이루어진 아래의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 확정 이전의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특별 위원회로는 미래 방향 및 전략 위원회, 재정 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가 있다.

또한 결속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전문 분야 또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 단체와의 협력 시 개입(조정) 부분을 관여하기도 한다.

- UNESCO - UIA 건축교육인증이사회
- DAPA - GAMSAM/MAPI - 20세기 건축 유산 웹사이트

각종위원회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논의하고 UIA 기본 정신의 틀에서 정리하여 의사결정 기구에 제출한다.

건축교육위원회는 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이 복잡해지고 그 비중이 증가하면서, UIA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건축교육헌장(Charter on Architectural Education)을 만들고 촉진시켰다. 이 기초의 문서는 건축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젊은 건축사들이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을 접하고 문화적으로 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문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면서,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건축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주어진 요건에 걸 맞는 우수한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해 UIA 명의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정의한 건축교육 헌장은 “창조적이고 윤리적이며 사려 깊은 자격을 지닌 전문적 설계인/건설인을 배양한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 변화에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을 배출한다”로 되어있어 모든 회원국 건축 교육의 지표가 되고 있다.

건축실무에 있어서 UIA 전문 국제기준 권장안은 무엇이 건축 직업의 가장 이상적인 실무 방안인지와 또 UIA가 바라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일련의 방침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정부 기구가 최근 지지하는 일련의 규범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또한 연맹의 어느 회원이라도 다른 회원을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다.

유네스코와 UIA가 협력하여 작성되고 유네스코 협의회로부터 승인된 UNESCO-UIA 국제적 경쟁 규정은 국제 현상설계를 진행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후원자와 경쟁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UIA는 UNESCO부터 그들이 제정하여 시행하는 이러한 규율들이 높이 평가되어, 일련의 경쟁을 잘 운영하도록 위임 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 역할을 통해 UIA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센터, 도쿄의 인터내셔널 포럼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같은 현대에 손꼽

하는 건축물이 탄생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UIA 기본 정신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임원과 이사들은 그들의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새로운 work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포하고 진행 시킬 수 있다. 이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이 선정하는 프로그램에 우리도 적극 참여하여 국내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가장 민주적으로 아니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진정 건축사의 본질이 아닐까 한다. 국내에서는 1963년도 한국건축가협회(KIA)가 회원국이 되어 국제적인 조직으로 지위를 갖게 되고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2차례에 걸친 총회유치 노력과 4차례에 걸친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건축계를 대표하여 4지역 이사로서, 교육위원회와 국제 현상설계 위원회에서 혁혁한 활동하신 조성중 건축사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린다. 모든 기구와 조직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밥맛이 없으면 그림이 되는 것이다.

각국의 건축관련 석학들과 건축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제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인류의 발전을 위해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시행하려 하고 있는 UIA 기구에 우리의 절실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실무의 세계화, 국제화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UIA 조직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존재이유와 상호 연계 방안, 공통관심사에 대한 제안, 조직 및 활동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국내 건축계의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 또는 기구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한명수 협회장의 주도하에 5개국 대표들과의 연속회의 준비와 대처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 세부사항은 대표단 중 심재호 이사가 별도로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여 여기서는 생략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um에서는 유럽연합, 미주연합회, CAA 등 세계에 흩어진 건축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그들

이 속해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 상황을 발표하였다. ARCASIA는 구성국가의 특성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 내용을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사안은 'Benefit to all' 즉 모두 회원국에게 유익이 되는 건축사 연합이라는 기본 정신에 의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제2지역 부회장이며 금번에 회장에 입후보한 Giancarlo Ius가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회장 Gaetan Siew의 차분한 진행으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되었다.

모든 참가국의 최대 관심사인 회장, 임원, 이사 선출 선거와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은 총회의 하이라이트였다. 국내에서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조성중 건축사는 안타깝게 낙선하였고 제4지역 이사직에서 본협회 심재호 이사가 당당히 선출되었다. 임원진 선거결과,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속해있는 제4지역에서 회장에 오스트레일리아의 Louis Cox, 재무관에는 싱가포르의 Goh Chong, Chia가 선출됨으로써 아시아가 급부상하는 분위기였다.

2011년 일본 동경에서의 제 24차 총회 이후의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는 싱가포르가 열정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표 차이로 아프리카의 South Africa Durban으로 결정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무척이나 어린이와 건축을 사랑하며 열정적이었던 Giancarlo Ius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동시에 한국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각종 working group과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다.

이제 우리 건축계가 힘을 모아 후배에게 선진국의 건축사들과 어깨를 견주는, 실력 있는 건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열정이 필요한 때다.

아시아건축사연합회  
이근창 회장

## 제23차 UIA(세계건축사연맹) 총회-건축 보고서

UIA 대회의 꽃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건축 포럼에 있었다. 건축이라는 이름아래 세계의 건축사, 학생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최근의 건축적 동향과 변화의 관심을 싣고 현재 문제를 재인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세계 건축인들의 강연 무대로 펼쳐진다. 세계 각국에서 300여명의 강연 및 토론자가 초청되어 4일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열린다. 6,500명이 들어가는 팔라벨라(PALAVELA)에서 50석 규모의 컨벤션 홀의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각자의 관심에 따라 시간대별로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게 편성되어 있었다.

4일간에 걸쳐 짜여진 포럼의 스케줄은 Transmitting Architecture(전파되는 건축)이라는 대 주제 아래 첫째 날의 Culture(문화), 둘째 날의 Democracy(민주주의), 셋째 날의 Hope(희망)으로 소주제 속에 포럼이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큰 잔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계적 스타건축사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셋째 날의 메인 스피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과시했으며 예나 지금이나 그의 명성에는 변함이 없어보였다. 피터 아이젠만은 강연 시작부터 그의 특유의 현상학적 사고의 전개를 거침없이 펼쳐 나아갔으며 대가의 건축이론은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 보였다. 특히 강연의 서두에서 그는 포럼의 주제인 Transmitting Architecture를 부정하며 건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비판적 해석으로 시작하여 시종일괄 현재 진화되고 있는 컴퓨팅을 통한 자유로운 건축형태 생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견해를 설명하고 요즘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렌드처럼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여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는 형태 생산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지적행위에 관한 현상학적 가치관에 대하여 강조 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 하였다.

이번 포럼의 전반적인 내용의 주된 관심은 아마도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인간화, 정보와 기술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달려온 현대화의 길목에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 매우 근심어린 눈빛으로 세계의 건축인들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장이었다. 역사속의 흔적들, 인간적 가치들, 다양성의 사회에 건축이 나아가야 될 민주적 결집과 신기술을 미래의 희망으로 삼고자 하는 세계 건축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3일만에 걸쳐 편성된 포럼의 주요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날\_Culture(문화) / 7월 30일

- 사 회 : Marco de Michelis
- 메인 스피커 : Kengo Kuma
- 주 제 : 현대건축의 언어

과거 몇 십년동안의 복잡한 사회와 물리적 환경에서 건축언어의 역할은 어떠한가? 형태언어는 개인의 창작 행위에 국한되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공장 생산처럼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는 상반된 현상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건축의 언어는 상호 교류와 대화의 기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인간의 거주환경을 위해 더 나은 형태의 변형이 현대적 건축언어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강연이 진행되었다.

- 사 회 : Giorgio Tartaro
- 강연자 : Mark Wigley, Richard Saul Wurman
- 주 제 : 창의성과 전문가

전문가의 문제와 개인의 창의성의 관계에서 혁신과 사회적 실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건축의 도전과 열망은 항상 설계상의 아이디어와 비전에 여러 가지 기술과 실용적인 형태를 제시하여왔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조건과 항상 그 속에서 도시는 거대해지고 보다 더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며 변

화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건축사의 전문성과 창의성 관계의 역할과 방법을 사회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찾아보고 제시한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 이외의 강연 주제들
  - 젊은 건축
  - 전파되는 공업도시
  - 건축과 맥락
  - 문화적 변화의 건축
  - 건축과 신문
  - 배움의 이해: 건축과 도시 교육
  - 전파되는 조경건축
  - 모두를 위한 건축 등등...

### 둘째 날\_Democracy(민주주의) / 8월 1일

- 사 회 : Giorgio Santilli
- 메인스피커 : Massimiliano Fuksas
- 주 제 : 프로젝트, 고찰과 결정

일반인들은 건축사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건축사의 스케치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보면서 매우 독자적이면서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긴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 가야하는 생산품과도 같다. 따라서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건축의 작업에서 도덕성과 공공성은 건축 미래의 바탕이 된다.

- 이외의 강연 주제들
  - 영토변형의 대화와 투쟁
  - 도서관: 새로운 도시문화와 민주주의
  - 세계의 도심들
  -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 유동성 공간의 건축
  - 건축시민 (Archi-citizen)
  - 건축사의 역할 등등...

### 셋째 날\_Hope(희망) 8월 2일

- 메인 스피커 : Peter Eisenman  
Dominique Perrault(불참)
- Keynote Speech : Muhammad Yunus(2006년 노벨상 수상자)

- 사 회 : Alessandro Cecchi Paone
- 강 연 자 : Marcos Novak / Michelangelo Pistolet
- 주 제 : 기술의 공상

몇 십년 전부터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와 진보적인 건축을 후원하며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접목으로 건축은 보다 실험적이며 상상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창의적 프로세스와 신기술의 관계가 무엇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가까운 미래의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창의적 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예상을 설명한다.

- 이외의 강연 주제들
  - 미래를 위한 건물
  - 전파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 미래의 혁신기술과 재료
  - 유비쿼터스 기술과 인간맥락
  - 아프리카의 그린 빌딩
  - 지속가능한 건축, 초고층의 역할 등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정재욱 위원장